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

김 민 경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국제결혼한 농촌남성 184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와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한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결혼행복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은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결혼행복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어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결혼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탄력성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이 경험하는 가족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이 주어진다면 결혼행복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이 기반되어야 하며 특히 자아탄력성이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을 매개하고 있어 결혼행복을 향상을 위한 자아탄력성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 결혼행복, 국제결혼한 농촌남성

* 본 연구는 2011년 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012년 남서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mkm35@nsu.ac.kr)

I. 서론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결혼생활속에서 행복은 인생의 중대한 목표이자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매개로 개인적, 사회구조적인 이질적 원인들이 내재된 외국인여성과 한국남성들간의 국제결혼은 복합적인 문제들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이혼은 2008년 7,962건으로 전년도보다 39.5%가 증가하였고 2011년 8,349건으로 전년에 비해 6.3%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 국적별로 혼인 누적건수가 많은 중국 4,783건(57.3%), 베트남 1,931건(23.1%), 필리핀 328건(3.9%), 일본 292건(3.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부부가 85.4%이며 평균 동거기간이 3.1년으로 나타나 결혼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초창기 결혼불안정성의 주된 원인제공자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들은 결혼이민여성 남편들에 대해 부부갈등의 원인제공자(김오남, 2006; 윤형숙, 2004), 폭력의 주체(양철호 등, 2003; 최금혜, 2007), 가부장적 태도 소유자(홍기혜, 2000), 무능력자와 역할불이행자(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등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추후 이러한 연구들이 지나친 여성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사회적인 문제제기의 기폭제로 작용된 점, 다문화사회의 통합주체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한 점 등 한계점이 지적되고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점제시와 이해가 이루어졌다. 또한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남편의 행복에 미치는 관련변인(양순미, 2007) 등 양적연구를 시작으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들의 결혼적응과 행복에 미치는 변인탐색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채옥희, 홍달아기, 2008),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결혼동기와 배우자와의 관계형성 내용과 과정 그리고 질적인 변화(이근무, 김진숙, 2009), 국제결혼한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김민경, 2009), 국제결혼한 남성의 남편으로서의 경험(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생애사 연구(엄명용, 2010) 등 질적 연구들의 등장으로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심층적 해부가 시작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그동안 국제결혼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보다 사회적 통합과 안정된 결혼생활유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높은 이혼율과 가족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국제결혼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과 사회양쪽에 다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결혼의 문제와 위험성의 측면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Roer-Strier & Ezra, 2006). 한편 다문화가족의 결혼해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과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결혼행복을 갖게 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없어왔다. 이렇게 볼 때 국제결혼한 부

부에 대한 개입초점은 국제결혼한 부부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현재 문제의 해결로부터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탄력성에 근거한 접근이 한 방법임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결점관점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강점관점으로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가족들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하는 지를 보는 것이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즉 역경이나 위기를 도전받는 가족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족의 결점보다는 보완 가능한 강점에 초점을 두어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을 더 강해지게 하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Walsh, 2002).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부정적 특성을 중재하여 결혼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이 언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서하진, 김정옥,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관계에서 Scheier, Weintraub과 Carver(1986)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양순미(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체계의 건강한 상호작용적 특성이 중년기 농촌부부의 행복감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Fineberg(1975)도 행복한 결혼조건으로서 부부의 애정과 이해를 지적하면서 부부상호작용간

의사소통에 의한 애정표현은 행복을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즉 결혼행복에 있어 가족간의 유대와 의사소통 등 긍정적 상호작용이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여 행복향상에 탄력성이 기여하고 있다(송영경, 2006). 또한 자아탄력성의 주요요인인 자존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활력적인 결혼생활을 이끌어간다(이은주, 1993; Culp & Beach, 1998)는 결과를 볼 때 자아탄력성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들이 결혼생활에 가족탄력성이 주어진다면 긍정적 내적자원인 자아탄력성과 함께 결혼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탄력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부부가 적응하는데 결혼이민자의 노력과 변화와 함께 남편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남편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족환경적 측면에서 가족탄력성과 개인특성인 자아탄력성을 통한 행복의 기여점을 살펴보는 것 또한 결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개입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매체와 연구 등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남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부부적응

과 가족안에서의 적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적 역할은 다른아닌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인 남편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의 계발과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족의 결혼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 1)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 3)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고찰

1. 결혼행복,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

결혼행복감이란 결혼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반영하는 개인적 태도(Johnson et al., 1986; 김연수, 2010 재인용)로서 결혼생활전반을 통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충족감 및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등 가족과 관련된 연구분야의 핵심주제가 되어왔으며 연구자에 따라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결혼만

족(marital satisfaction),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등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개인이 삶 전체에서 느끼는 행복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Glenn & Weaver, 1981), 어떠한 요인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결혼행복감 등 결혼생활의 질은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부부의 결혼내적체계와 외적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가족탄력성이란 가족들이 위기나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주요과정(Walsh, 1998)을 말한다.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적응되고, 변화에 직면하여 이를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이라 할 수 있다(McCubbin & McCubbin, 1993). 아울러 가족탄력성은 가족구성원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Walsh & Olson, 1989). 가족탄력성의 요인들은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차원의 요소로 구성되며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강조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양한 측면으로 제시된다. McCubbin, McCubbin과 Thompson(1993)은 가족형태, 가족스키마,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들을 제시하고, Walsh(1998)는 가족탄력성이 신념체계, 조직유형,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강점관점에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에 접근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나 다문화가족의 가족

건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김혜신(2011)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은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과 최혜영(2009)의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실패의 상황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Rutter(1990)는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해 각 개인이 나타내는 다양한 반응들 중에서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고 하면서 이는 강점이나 약점과 같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며 심각한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존감(self-esteem)은 주관적 안녕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1981). 즉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성취에 따른 결과물인 동시에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을 증진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탄력적 산물로 자기수용, 자기신뢰, 자기가치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 평가되어 왔다(Rew, Taylor-Seehafer, Thomas, & Yockey, 2001; Sagy & Dota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을 자존감과 자기신뢰로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

탄력성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보면 세대를 불문하고 가족건강성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반대로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지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도 있어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권대회, 오윤자, 2004; 서하진, 김정옥, 2009).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특성이 개인의 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궁극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좋은 가족 요인은 개인의 능력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은 다시 삶의 전반적 질을 의미하는 결혼행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롯된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결과들로, 가족건강성 중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서하진, 김정옥, 2009). 유사하게 공개입양가정의 가족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의 신념체계가 높을수록, 조직유형이 잘 될수록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조민혜, 강현아, 2010). 또한 대학생의 원가족건강성과 자기분화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효능감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 가족기능과 원활한 가족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경애, 2007). 김연수(2010)는 가족탄력성접근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효과에서 가족탄력성개입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고, 화를 조절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는 등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보여준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보면 다

음과 같다. 결혼이민여성 남편은 자신감의 결여와 표현능력의 미흡이 나타났는데 가족관계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엄명용, 2010).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경우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추현화 등, 2008). 결혼이민여성도 자존감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07). 국제결혼과정을 생애사 연구로 접근한 이근무와 김진숙(2009)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은 부인과 동업자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등해지자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었고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종료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국제결혼한 남편은 외면하고 떠넘기기, 배려하고 지원하기, 포기하고 참아내기, 걱정하고 희망찾기, 안정되고 만족하기 등으로 분류하여 남편들의 다양한 결혼적응의 모습이 파악되었다(김민경, 2009). 자아탄력성의 주요 하위요인인 자존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활력적인 결혼생활을 이끌어간다고 하여(이은주, 1993; Culp & Beach, 1998), 자아탄력성이 결혼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도 반복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영신, 김의철, 2009; 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는 반면에,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중심적

인 대처를 하고(Lazarus & Folkman, 1984), 개인적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지, 조직, 회상하거나(Kanfer & Hagerman, 1981) 부정적 사고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Wenzlaff, Wenger & Roper, 1988)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McCubbin, Balling, Possin, Friendich와 Bryne(2002)은 소아암 환자부모 4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가족탄력성 요소들이 가족의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cCubbin과 McCubbin(1993)은 뇌손상 환자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서 가족탄력성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Scheier 등(1986)도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남녀모두 가족생활의 질이 행복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Lee, Seccombe, & Shehan, 1991; Wood, Rhodes, & Whelan, 198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행복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국제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순미와 정현숙(2006)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정도는 아내와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의사소통 또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송지현, 이태영, 2010; 장온정, 2007). 즉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부부

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부부뿐만아니라 일반부부를 포함한 어느 결혼에서도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부역할평등, 의사소통 등이 부부관계나 부부적응에 있어 공통적인 갈등의 요소(이은주, 2007)가 되고 있다. 농촌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순미와 정현숙(2006)도 결혼생활적응과 결혼만족에 부부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자기노출정도 등 부부관계적 요소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영주, 김순옥과 김경신(1996)은 결혼생활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결혼생활의 환경문화 및 규범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결혼생활의 기대에 맞추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가족전체의 행복과도 직결된다고 하였다. 가족탄력성접근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효과를 살펴본 김연수(2010)는 부부간의 대화가 증진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결혼생활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가족탄력성 중 신념체계, 조직유형은 불안정, 부정적 정서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박진선, 박은희, 2010). 구체적으로 신념체계의 가족통제감, 조직패턴의 역할안정성, 의사소통과정의 의사소통과 정서반응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에서 가족탄력성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이 결혼행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보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으나 유사한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행복이 높게 나타났다(서하진, 김정옥, 2009). 특히 가족건강성 중 가족의 가치관과 목표공유, 가족탄력성, 경제적 안정과 협력, 사회와의 유대 등이 자존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탄력성이 특히 유일하게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경로모형에서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과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에서는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건강성에 결혼만족도를 통해, 직접 가족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전혜정 등, 2009).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다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경은과 최은희(2010)의 연구와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 연구(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등에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조계연, 이은희, 2007)와 한연민(2010)은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대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문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높은 가족탄력성은 높은 자아탄력성을 예측하

여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혼행복도를 예측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가족의 특성과 더불어 개인내적 특성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J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이다. 이들의 일상생활갈

등, 우울,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확률 표집 중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수행 전 관할지역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문화가족 실무담당자를 찾아가 연구목적을 이해시키고 사전 양해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하고, 가족과 다문화전공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N	%
남편 연령	30대	18	9.6	부인 연령	20대	133	72.3
	40대	70	38.3		30대	48	26.1
	50대이상	96	52.1		40대이상	3	1.6
결혼 기간	2년이하	25	13.6	자녀수	없다	6	3.3
	2-4년이하	79	42.9		1명	51	27.7
	4-7년이하	68	37.0		2명	99	53.8
	7년이상	12	6.5		3명이상	28	15.2
교육 수준	초졸	9	4.9	직업	농어업	137	74.5
	중졸	91	49.5		판매서비스직	1	0.5
	고졸	90	43.5		사무관리직	1	0.5
	대졸이상	4	2.2		기타	43	23.4
					없음	2	1.1
부인 국적	중국	44	23.9	가정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22	12.0
	베트남	108	58.7		101-150만원	59	32.1
	필리핀	13	7.1		151-200만원	34	18.5
	기타	19	10.3		201-300만원	30	16.3
					301-400만원	16	8.7
					401만원이상	23	12.5
부인 직업	없다	171	92.9	부모동거 여부	동거	140	76.1
	있다	13	7.1		동거않음	44	23.9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무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남편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 18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며 부인의 연령은 20대가 133명으로 72.3%, 30대가 26.1%로 농촌남성과의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 결혼기간은 4년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녀수는 2명이 53.8%, 1명이 27.7%, 3명 이상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49.5%, 43.5%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대부분 농어업이 74.5%로 나타났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23.9%, 필리핀이 7.1%를 차지하였고, 가정 월평균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44.1%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하가 60% 가까이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직업은 없는 경우가 92.9%를 나타내었고 부모와의 동거는 76.1%로 높은 동거율을 보였다.

2. 측정도구

가족탄력성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을 알아

보기 위한 척도는 유영주(2004)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중에서 가족탄력성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서하진과 김정옥(2009)의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활용하여 Cronbach's α 값은 .914로 신뢰도를 검증받은 바 있다. 문항내용은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가족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족은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14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이상준(2006)이 사용한 것을 토대로 성격차원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의 탄력성 측정은 자존감과 자기신뢰로 구성하였다. 이상준(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존감 .81, 자기신뢰 .75로 각각 나타났다. 자존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Self Esteem Scale) 10문항을 측정하였는데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등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는 .901로 나타났다. 자기신뢰는 박난숙(1992)이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는 .874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행복

결혼행복은 Natham 등(1973)의 Marital Happ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양육에 행복감을 느낀다’, ‘부부간 의사소통에 행복감을 느낀다’, ‘성생활에 행복감을 느낀다’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는 .810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RMSEA값이 .05이하이

고, CFI와 TLI는 .95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자존감($r=.454, p<.001$)과 자기신뢰($r=.514, p<.001$)와의 정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도 높게 나타날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r=.363, p<.001$)과도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나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도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자존감($r=.446, p<.001$)이 높은 경우, 자기신뢰($r=.516, p<.001$)가 높은 경우 결혼행복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은 전반적으로 5점 척도하에

표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M(SD)
1. 가족탄력성	1.000				3.408(.844)
2. 자존감	.454***	1.000			3.359(.821)
3. 자기신뢰	.514***	.742***	1.000		3.450(.878)
4. 결혼행복	.363***	.446***	.516***	1.000	3.327(.605)

*** $p < .001$

서 중간수준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한 지 2년 이상이 된 농촌남성들로 결혼초기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극복한 결과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2.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1 참조). 다음

단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자존감과 자기신뢰)을 매개로 결혼행복으로 가는 경로와 가족탄력성이 행복으로의 직접 경로를 통하여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2 검증을 이용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Aroian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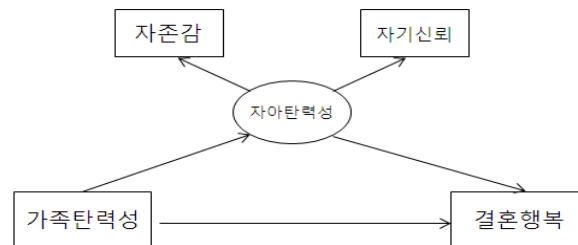


그림 1. 기본모형: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간의 부분매개모형

표 3.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RMSEA	TLI	CFI
부분매개모형	4.410	2	.000	.080	.965	.972
완전매개모형	26.574	3	.000	.002	1.000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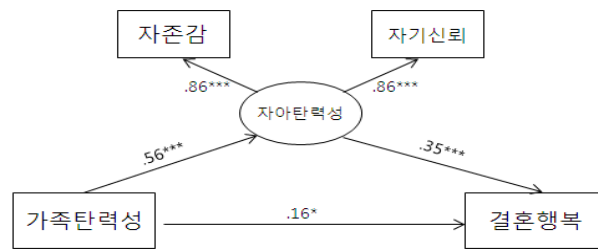


그림 2.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간의 부분매개모형

표 4.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간의 부분매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가족탄력성 → 자아탄력성	.562***	.487	.059	8.208
자아탄력성 → 결혼행복	.354***	.293	.066	4.444
가족탄력성 → 결혼행복	.163*	.150	.053	4.943

* $p < .05$, *** $p < .001$

부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2, 표 4 참조). 즉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이 결혼행복에, 가족탄력성이 결혼행복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이 높게 나타났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완전매개모형의 RMSEA가 .080이고 TLI값과 CFI값이 .965, .972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다음으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가족

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3, 표 5 참조). 즉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이 결혼행복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완전매개모형의 RMSEA가 .002이고 TLI값과 CFI값이 각각 1.000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매개모형보다 더 좋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따라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을 통한 매개효과는 α (가족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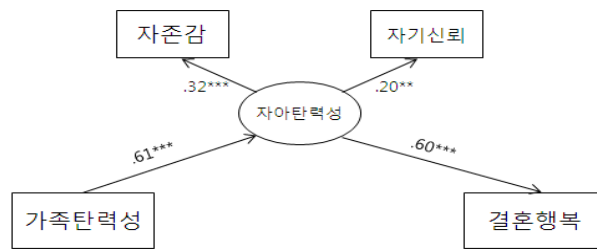


그림 3.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간의 완전매개모형

표 5.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간의 완전매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가족탄력성 → 자아탄력성	.607***	.520	.057	9.105
자아탄력성 → 결혼행복	.604***	.506	.057	8.813

*** $p < .001$

→자아탄력성)의 효과와 b (자아탄력성→결혼행복)의 효과를 곱한 ab 로 정의된다.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b 에 대한 Aroi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의 효과

- b (표준화계수): (자아탄력성→결혼행복)의 효과
- SEa : a 의 표준오차, • SEb : b 의 표준오차

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및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Aroian Test를 실시하였다(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 a (비표준화계수): (가족탄력성→자아탄력성)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Aroian Test의 Z값은 3.431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p < .05$). 이는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국제결혼

표 6. Aroian Test에 의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로	Z
가족탄력성 → 자아탄력성 → 결혼행복	3.431*

* $p < .05$

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을 높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결혼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을 매개하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경험하는 가족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이 주어진다면 결혼행복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존감 및 자기신뢰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지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권대희, 오윤자, 2004; 서하진, 김정옥, 2009)를 통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도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결혼한 부부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부 모두 결혼만족과 관련되었다(송지현, 이태영, 2010; 양순미, 정현숙, 2006)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서로간의 직접적인 가족내에서의 긍정적 소통이 결혼행복과는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체계의 건강한 상호작용적 특성이 중년기 농촌부부의 행복감에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양순미(200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생활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높다면 결혼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간에도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존감과 자기신뢰가 각각 높은 경우 결혼행복이 높게 나타나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역할 및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존재할 때 결혼행복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경우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추현화 등, 2008), 결혼만족도가 높고 활력적인 결혼생활을 이끌어간다(이은주, 1993; Culp & Beach, 1998)는 결과들을 통해 볼 때 결혼행복과 자아탄력성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은 전반적으로 중간수준 이상을 상회하고 높은 가족탄력성은 높은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도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한 지 2년 이상이 된 비교적 결혼생활이 안정화된 농촌남성들로 결혼초기의 어려움을 이미 잘 이겨낸 결과로 보

여진다.

둘째,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은 서로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일 수 있으나 가족탄력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권대희, 오윤자, 2004; 서하진, 김정옥, 2009) 하에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이 유지된다면 자아탄력성 또한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탄력성의 향상을 위해 가족탄력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가족기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남성, 남편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볼 때 가족원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가족과 가족원개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결혼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탄력성은 결혼행복에 직접적인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이 변화와 안정성을 위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능력으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결혼행복도 높게 나타났는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양순미, 2007; Scheier et al., 1986)에서도 가족체계의 건강한 상호작용적 특성이 국제결혼부부의 행복감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결과들을 볼 때 가족과의 관계나 건강성이 담보될 때 결혼행복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서 많은 자원을 가진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은 결혼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결혼행복에 직접적인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한 남성이 자신감과 표현능력이 낮은 경우 가족관계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는 결과(엄명용, 2010)를 볼 때 한국 성인 남성으로서, 가족의 핵심일원인 남편으로서 자아탄력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결혼행복에 있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에 대한 대처에 효율적이고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한다(Block & Kremen, 1996; Cicchetti & Toth, 1998)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내에서 높은 자아탄력성을 소유한 경우 결혼행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행복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알고 계발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지금까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을 결혼해체의 원인제공자, 가해자, 우리사회의 주변인으로서 매도된 상황에서 이러한 시각에 대한 수정에도 자아탄력성 증진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자아탄력성이 제공되는 경우 결혼행복이 향상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가족탄력성은 결혼행복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보다 자아탄력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가족탄력성과의 유의한 정적관계를 통해 가족탄력성을 증가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결혼행복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의사소통 또한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송지현, 이태영, 2010; 장운정, 2007)으로 작용하였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나(추현화 등, 2008; Scheier et al., 1986)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이 각각 결혼생활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도 높게 나타나 결혼에 있어서 긍정성이 더욱 강화되고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에게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자아탄력성 증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남편의 위치와 역할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남편을 대상으로 한 가족탄력성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나아가 개인의 삶에 대한 대처와 만족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생활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가족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결혼행복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통제감, 역할안정성,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이 이루어진다면 결혼행복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Fineberg(1975)의 언급처럼 행복한 결혼조건으로서 부부상호작용간 의사소통에 의한 애정표현 등이 행복을 증대시킨다고 한 것을 볼 때 가족내에서 가족원들간의 유기적 관계와 기능 등이 결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조건에 있어 특수성이 내재된 국제결혼부부의 결혼행복을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의 계발과 증진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증진을 위한 부부대상, 가족대상의 프로그램과 개입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으나 이들의 결혼행복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단편적인 개입보다는 다문화가족의 변화주체가 될 수 있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가족내 문제해결, 미래에 대한 희망, 서로에 대한 지지 등 가족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가족탄력성이 결혼행복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가족탄력성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통해 가족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결혼행복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개인, 가족,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항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가족의 결혼행복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 향상 방안과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내적 심리적 근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 대

다수가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 인물로 주목받아왔기 때문에 한 개인, 가장, 남편으로서 자존감과 자기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 일부 다문화가족을 위한 탄력성향상 프로그램연구들(김연수, 2008; 김연수, 2010; 홍성희, 김성숙, 2009)이 시도되었으나 부부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탄력성을 포괄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미래 삶의 안정장치로서 자아탄력성의 계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족생활주기와 연령,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특성에 맞는 자아탄력성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뒤따라야 하겠다.

넷째, 다문화가족 결혼안정성을 위한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결혼행복 향상 방안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부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으로 남편을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연구(김오남, 김경신, 이정화, 2008),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연구(소병숙, 정혜정, 2009), 가족탄력성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연구(김연수, 2010)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행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이은주, 2007), 부부대상 프로그램개발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를 포함한 가족을 위한 결혼행복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자아탄력

성에 있어 가족요인인 가족탄력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결혼행복에 자아탄력성이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가족탄력성은 결혼행복에 자아탄력성을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그동안 국제결혼한 부부에 대한 접근이 문제중심적 접근에서 강점관점에서 이루어져 국제결혼한 부부와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시켜야 할 필요성을 검증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에 대한 이해와 이들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을 고려한 결혼행복 프로그램지원과 정책적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한국 농촌 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속에서 나타난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결혼행복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특성이 다른 일반 가족과 비교분석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단순한 사적공간이 아니고 우리사회의 담론과 제도, 정책 등이 작동하고 있는 반공적 영역이고 또한 거시적환경과 구조가 여타 가정에 비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담론질서의 장으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을 사회, 환경, 역사적 맥락 등 거시적 환경과 구조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지 않은 점 등을 제한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고문헌

- 고경애 (2007). 가족기능과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대회, 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 김경은, 최은희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김민경 (2009). 국제결혼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호, 217-252.
- 김연수 (2008).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적용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호, 189-222.
- 김연수 (2010).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59-90.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오남, 김경신, 이정화 (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3.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혜신 (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난숙 (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 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진선, 박은희 (2010). 유아 가족배경변인과 가족탄력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1), 203-225.
- 서하진,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들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소병숙, 정혜정 (2009).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해결 중심단기치료 이론을 기초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31-151.
- 송영경 (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지현, 이태영 (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64-192.

- 양순미 (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 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172.
- 양순미 (2007).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사회학, 17(2), 1-24.
- 양순미, 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엄명용 (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61-298.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119-151.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근무, 김진숙 (2009). 국제결혼한 남성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 이상준 (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 (1993). 기혼남여의 자아존중감과 활동적 결혼생활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 (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필리핀 여성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 장온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2009). 결혼이주여성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14(2), 5-27.
- 조계연, 이은희 (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조민혜, 강현아 (2010). 공개입양가정의 가족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3), 99-116.
- 채옥희, 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최금혜 (2007). 조선족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호, 225-254.
- 추현화,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 통계청 (2012). 2011년 혼인·이혼통계.
- 한연민 (201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

- 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희, 김성숙 (2009).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3(1), 119-14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95-212.
- Bandura, A. (1997). *Self: Efficien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e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adbury, T. M., Fincham, F. D., &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64-980.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Y: McGraw-Hill.
- Cicchetti, D., &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Culp, L. N., & Beach, S. R. H. (1998). Marriag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and bases of self-esteem differ by gend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647-663.
- Fineberg, B. L. (1975). Affect and status dimensions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155-160.
- Glenn, N. D., & Weaver, C. N. (1981). The Contribution of marital happiness to glob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1), 161-168.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anfer, F. H., & Hagerman, S. (1981).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L. P. Rehm(Eds.), *Behavior therapy for depression: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pp.143-180). New York: Academic.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Verlag.
- Lee, G. R., Seccombe, K., & Shehan, C. L. (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happiness: An analysis of trend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839-844.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E.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 7, 83-104.
- McCubbin, H. I., McCubbin, M. A., & Tompson, A. I. (1993). Resiliency in families: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pp.153-177).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cCubbin, M. A., Balling, K., Possin, P., Friedrich, S., & Bryne, B. (2002). Family resiliency in childhood cancer. *Family Relations*, 51(2), 103-111.
- McCubbin, M. A., & McCubbin, H. I. (1993). Families coping with illnes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C. B. Danielson, B. H. Bissell and P. W. Fry, *Family, health and illness: Perspective on coping and intervention*. St., Louise: Mosby-Yrar Book, Inc.
- Natham, H. A., Barry, T., Robert, J., Arizin, N. H., Naster, B. J. & Jones, R. (1973). Reciprocity counseling: A rapid learning-based procedure for marital counseling.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11, 365-382.
- Rew, L., Taylor-Seehafer, M., Thomas, N. Y., & Yockey, R. D. (2001). Correlates of resilience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33-40.
- Roer-Strier, D., & Ezra D. B. (2006). Inter-marriages between western women and Palestinian men: Multidirectional adaptation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41-5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Mastern, D. Cicchetti, K. Neu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pp.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gy, S., & Dotan, N. (2001). Coping resources of maltreated children in the family: A salutogenic approach. *Child Abuse & Neglect*, 25, 1463-1480.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Walsh, F. (1998). Editorial: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 Walsh, F.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공역). 서울: 나남. (원본발간일, 1998)
- Walsh, F., & Olson, D. H. (1989). *Utility of the circumplex model: System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Y: Haworth Press.
- Wenzlaff, R. M., Wenger, D. M., & Roper, D. W.(1988). Depression and mental control: The resurgence of unwanted negative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 882-892.
- Wood, W., Rhodes, N., & Whelan, M. (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 249-264.
- 1 차원고접수 : 2012. 4. 1
수정원고접수 : 2012. 5. 11
최종게재결정 : 2012. 5. 30

A Study on Family Resilience, Ego Resilience and Levels of Marital Happiness among Korean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im, Min-Kyeo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cor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of family resilience, ego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ego resilience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184 Korean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 data were analyzed via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ough SPSS and AMOS. The instruments utilized Lee(2006)'s Ego Resilience Scale, Shin(2001)'s Mental Health Scale, Yu (2004)'s Family Health Scale, and Natham et al(1973)'s Marital Happiness Scal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amily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Ego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happiness. Ego 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Family resilience influenced ego resilience. Ego resilience influenced positively marital happiness. In conclusion, there is a clear need for intervention strategies such as special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in order to strengthen marital happiness, family resilience and ego resilience on the part of Korean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ey words : Family Resilience, Ego Resilience, Marital Happiness, Korean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